「남북한의 천연기념물이 한 자리에」

남북한 천연기념물 콘텐츠 서비스 개시

세계적인 보호종인 '용림큰곰'과 천년에 한 번 나온다는 돌연변이 소나무 '함흥반송' 등 북한의 희귀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남 · 북의 천연기념물 700여 종이 웹상에서 통합 서비스 된다.

우리연구원과 문화재청(청장 俞弘濬)은 남북의 천연기념물을 한 자리에서 소개하는 서비스를 우리연구원의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http://nm.nktech.net)와 문화재청(http://www.ocp.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지난 1월 25일 밝혔다.

남북과학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서비스에서는 북한 중앙과학기술통보사(CIAST)에서 제공한 북한의 천연기념물 360여종과 문화재청에서 제공한 남한의 천연기념물 340여종에 대한 자세한 개요, 지정현황 및 내용, 분류별 검색, 지도를 통한 지역별 조회 등이 제공된다.

이번에 공개된 북한의 천연기념물 가운데는 한반도에서만 극소수 서식하는 '대성산 미선나무와 개성크낙새', 세계적인 희귀종인 '백암쥐토끼(쥐처럼 찍찍 우는 소리를 낸다)', 그리고 천년에 한번 나온다는 돌연변이 소나무인 '함흥반송(바닥에 넓게 누워서 자란다)'도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또, 남한에는 이미 멸종하고 없는 '백두산조선범'과 '와갈봉조선범', '용림큰곰'과 '관모봉큰곰'도 공개됐으며, 기후적으로 남한에는 분포하지 않는 '삼지연누렁이'라는 순록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의 천연기념물 가운데는 일반적인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인 문화 · 역사, 희귀성, 대표성 외에, 북한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들도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흥주닭'은 김일성 주석이 직접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광포종오리' 역시 김일성 주석이 집중적으로 기르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천연기념물에 지정됐다.

풍산개(북한 천연기념물 제368호) : 북한 고유품종으로 량강도 김형권군에 분포한다. 추위와 질병에 강하며 매우 영리하다.

백암쥐토끼(북한 천연기념물 제364호) : 일명 우는 토끼, 찍쥐라고도 불리며 량강도 백암군에 분포한다. 겨울잠을 자지 않으며 작은 무리를 짓는 등 특수한 생활양식으로 인해 학술적 의의가 크다.

강호능소화(북한 천연기념물 제162호) : 황해남도 배천군 분포. 높이 20m, 밑 둘레가 55cm나 되는 거대한 덩굴식물로, 1840년경에 심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사회가 희귀자료를 다량으로 공개했다는 데 일차적인 의미를 두고 있으며, 남북이 서로를 이해해 통일로 다가가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참고로, 남한 천연기념물 제1호는 대구시에 있는 '달성의 측백수림' 이며, 북한 천연기념물 제1호는 평양시 릉라도에 있는 '릉라도 산벗나무와 전나무' 다.

이번 서비스는 남 · 북한 자연환경에 관한 희귀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통일에 대비해 북한 자연에 대한 기초 정보를 축적했다는 점, 또 비록 사이버상이긴 하지만 남 · 북의 천연기념물을 한 자리에 모아 소개함으로써 문화적 동질성을 높였다는 데도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일반인들도 쉽게 남북한의 천연기념물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자료로도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연구원은 CIAST와 함께 '남북한 천연기념물 통합 서비스' 의 콘텐츠를 점차적으로 보강하고 동영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올 연말에는 CD롬 타이틀로도 제작해 무상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연구원과 북한 CIAST는 지난 해 2월, '최초의 남북 과학기술정보 연구기관 합작 프로젝트' 인 멀티미디어 콘텐츠 '백두산의 자연'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백두산의 자연' 은 백두산의 동식물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사진, 3차원 입체지도와 지리정보시스템 등이 수록된 디지털 백두산 총서다.

동향정보분석실 최현규 팀장은 "북한 사회가 희귀자료를 다량으로 공개했다는 데 일차적인 의미를 두고 있으며, 남북이 서로를 이해해 통일로 다가가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통합 서비스의 의의를 밝혔다.

백두산 조선범(북한 천연기념물 제357호) : 량강도 대흥단군과 삼지연군 등지에 분포, 국제적인 특별 보호 대상동물이다.

삼지연누렁이(북한 천연기념물 제354호) : 량강도 삼지연군 신무성의 1,500m 이상 고지에 주로 분포, 국제적인 보호대상동물이다.

대성산 미선나무(북한 천연기념물 제12호) : 평양시 대성구역에 서식하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1속 1종의 희귀한 특산식물이다.